

# 독서왕 김득신의 『독수기(讀數記)』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ding King, Deuk-shin Kim's *Doksoogi*

한 미 경 (Mi-kyung Han)\*

### 목 차

- |                 |                            |
|-----------------|----------------------------|
| 1. 서 언          | 3.1 김득신의 생애와 저술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2 『백곡집』의 편찬과 현전본         |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독수기』의 분석               |
| 2. 연구의 배경       | 4.1 『독수기』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의 비교 |
| 2.1 선행연구        | 4.2 『독수기』의 분석              |
| 2.2 독서기록        |                            |
| 3. 김득신과 『백곡집』   | 5. 결 언                     |

###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 독서왕 김득신의 독서기록인 『독수기』에 대한 조사 및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백곡집(柏谷集)』 현전본 중 김상형 소장본과 성대 존경각 소장본에 독수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둘째, 『독수기(讀數記)』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의 1) 기록순서, 2) 고문 수 기록의 차이, 3) 고문 제목의 차이, 4) 독수 횟수 기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문삼십육수독수기』 기록 이후 『독수기』로 추가 및 재편성하였다. 셋째, 『독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36편의 고문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1) 내용의 경우 주로 시문류를 읽었다. 2) 시문류 형식의 경우 주로 산문, 증서, 서간문, 잡설, 제문 등을 읽었다. 3) 저자의 경우 당나라 문인 한유의 고문을 가장 많이 읽었다. 4) 김득신은 한권의 책을 읽기보다는 문장 성격의 고문을 주로 읽었다.

### ABSTR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out of existing manuscripts of *Baeggokjib*, the one possessed by Sang-hyun Kim and the one possessed by Jonkyunggak, Sungkyunkwan University shows reading records. Secondly, as a result of the analyses of the differences between *Doksoogi* and *Gomoonsamshibyookdoksoogi*, in terms of 1) order of records 2)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old texts included in the mentioned reading records 3) the difference in the title of old text, 4) the difference in records of reading times, they were revised and rearranged to *Doksoogi* after the record of *Gomoonsamshibyookdoksoogi*. Thirdly, as a result of investigations and analyses of 36 types of old texts recorded in *Dogsoogi*, it was found out that 1) in terms of contents, he mainly read literary books 2) in terms of style of literary books, he read mainly prose, preface, epistle, idle stories, funeral orations, etc. 3) in terms of authors, he read the old texts of Han Yoo who was the literary person during Tang Dynasty 4) Deuk-shin Kim read tend to read mainly old texts instead of single books.

키워드: 김득신, 백곡집, 독수기, 고문삼십육수독수기, 독서, 독서기록, 독서왕  
Deuk-shin Kim, Baeggokjib, Doksoogi, Gomoonsamshibyookdoksoogi, Reading, Reading Record, Reading King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조교수(bib4u@kgu.ac.kr)  
논문접수일자: 2015년 1월 26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2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2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423-441,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423]

## 1. 서 언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독서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책을 읽음’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책 읽기’로 순화하여 회자되고 있다. 독서에 대한 보다 기능적인 정의로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히기 위하여 책을 읽는 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오늘날 독서는 정보제공, 지적 능력의 계발, 바람직한 정서와 가치관 함양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과 결속력의 강화 등의 기능적 측면으로도 정의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식인들의 독서목적은 입신양명과 국가적 이익 추구였으며, 국가적으로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를 두어 인재양성과 미래를 위한 준비 기능으로 독서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실학자 박지원(朴趾源)은 ‘학문을 강론하고 도를 구하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것(講學論道, 讀書之事也)’이라 하였다. 즉, 전통적으로 입신양명, 인재양성, 강학논도의 공통적 방법은 바로 ‘독서’였다.

독서와 관련한 대표적인 인물들로 정약용, 이덕무, 이이, 박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특히 조선중기의 김득신(金得臣)은 한평생을 독서에 정진하며 58세에 출세하였으며, 반복적인 독서를 통한 노력형의 대기만성형으로 시인이자 비평가로 유명하다. 디지털시대인 오늘날에 있어 독서는 독서치료와 독서치유 등의 영역에 이르기 까지 그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김득신은 독서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은 독서 치유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김득신은 독서왕 또는 책벌레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쓴 『독수기(讀數記)』의 기록은 반복과 정독의 독서법의 실제 기록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만 번 이상씩 읽은 독수기록의 사례로 인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그가 읽은 문헌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독수기』의 기록에 대한 상세한 조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곡집(柏谷集)』의 간행과 현전 본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독수기(讀數記)』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의 독수기록의 차이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독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36편의 고문에 대하여 조사하고 내용분석을 진행하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김득신의 『독수기』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목적으로 문헌연구와 역사연구 및 서지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연구의 방법과 범위 및 그에 따른 일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득신의 저술서 중 문집인 『백곡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백곡집』은 현재 필사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朝45-가454)과 후손 김상형(金相馨) 소장본(일명 패인정사본(覇印淨寫本), 태학사와 한국문집총간 등의 영인본)과 목판본(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D03B-0411))이 전하고 있다. 이들 현전본에 대한 서지적 조사를 진행하며, 판본에 대한 연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현존본 『백곡집』 중 성대 존경각 소장본과 김상형 소장본에 실려 있는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와 김상형 소장본에 실려 있는 『독수기(讀數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독수기록인 『독수기』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를 대상으로 1) 기록 순서, 2) 고문수 기록의 차이, 3) 고문 제목의 차이, 4) 독수횟수 기록의 차이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독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36종의 고문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36종의 고문 중 일부 『분왕(分王)』 등과 같이 구체적인 관련기록이 없는 고문의 경우 성격이나 원 저자 및 글자 수에 대한 조사에 제한이 있다.

다섯째, 『독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36종 고문의 분석은 1) 내용, 2) 형식, 3) 저자별, 4) 글자 수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김득신의 『독수기』에 대한 연구의 배경으로 선행연구와 독서기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1 선행연구

김득신에 대한 연구는 인물에 대한 연구, 작품에 대한 연구, 시와 비평세계에 대한 연구 등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 김득신에 대한 연구와 김득신의 저술에 대

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김득신에 대한 연구의 경우 시인이자 비평가로서의 활동을 주로 한 인물로서 대체적으로 시인으로서의 그의 작품세계와 시론 그리고 산문학, 여문(儷文)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李英徽 1991; 김창룡 2004; 성범중 2004; 김성기 2006; 김광수 2010). 그 외에 일부 서예세계에 대한 연구도 있다(장진숙 2014). 한편 김득신에 대한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연구의 경우 그의 독서생활을 중심으로 생애와 문학세계에 대한 고찰들이 이루어져 왔다(김창룡 1992; 李在福 1998; 임동철 2004). 이들 선행연구는 대부분 김득신의 끊임없이 독서를 통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인간승리적인 삶을 연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득신의 저술에 대한 연구는 시화(詩話)인 『종남총지(終南叢志)』 외에 가전소설 『환백장군전(歡伯將軍傳)』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중 배다니엘(1998)과 신범식(2004)과 박수천(2007)은 『종남총지』에 대하여 대체로 김득신의 시론으로서 비평양상과 비평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안병렬(1985)은 폐관문학으로서 『환백장군전』을 대상으로 집단 창작적인 의미가 가미된 민간의 이야기이자 후대 소설의 전신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가전소설의 일환으로 연구하였다.

김득신은 독서를 하면서 당시 만 번 이상 읽은 책들에 대한 기록으로 『독수기』를 남겼으며, 이는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과 반복과 정독의 독서 방법 기록으로 빈번히 언급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2.2 독서기록

일상의 학습과 학문연구 및 입신양명의 구체적인 방법이었던 독서를 하면서 다양한 관련기록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독서에 대한 기록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독서기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형 독서기록. 남송의 조공무(晁公武)는 2만 4천여 권에 달하는 책을 소장했으며, 개인 장서목록으로 『군재독서지(群齋讀書志)』를 편찬하였다. 우무(尤袤)의 『수초당서목(遂初堂書目)』은 대표적인 판본목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해제형 독서기록. 이상의 목록형 독서기록인 남송 조공무의 『군재독서지』는 해제(解題)형 목록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우무(尤袤)는 『수초당서목』에서 책들을 초록하고 있다. 송의 진진손(陳振孫)의 도서목록집인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도 해제 목록이다. 한편, 조선 후기의 문신 홍석주(洪奭周)의 독서록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 또한 각 책마다 저자와 권책수를 기록하고 간단한 해설을 하고 있는 해제목록이다.

셋째, 주제분야별 독서기록. 청대 우재경(尤在涇)의 『의학독서기(醫學讀書記)』는 줄여서 『독서기(讀書記)』라고도 불리며 1729년에 3권 및 속기(續記) 1권으로 편찬한 의서이면서 의학분야 독서기록이기도 하다. 즉, 이는 우재경이 임상과 이론을 연구한 결과를 짧은 문단으로 나누어 실은 것으로 의학의 기초이론, 진단, 변증, 치료법, 병증, 방약(方藥), 침구(鍼灸), 운기(運氣), 의학서적에 대한 잘못 된 점이나 선배의가의 기술사항 지적 등 다양한 내

용을 다루고 있는 전문적인 독서기록이다.

이처럼 독서에 대한 기록은 장서목록이나 판본목록의 형태로 또는 각 문헌에 대한 상세한 내용분석으로 구분된다. 독서왕으로 평가되는 김득신은 대표적 독서방법으로 반복과 정독으로 독서한 것과 같이 독서의 양적 결과를 『독수기』로 남겼다. 이는 그가 비문에 남겼듯이 우둔하지만 끊임없이 독서하면서 말년에 이르러 큰 성위를 이룬 노력형 인간으로서 독수를 기록한 일레라 할 수 있다.

## 3. 김득신과 『백곡집』

이 장에서는 김득신의 생애와 저술을 살펴보고, 김득신의 대표적인 저술서이자 『독수기』가 실려 있는 『백곡집』의 현전본에 대하여 조사 고찰하고자 한다.

### 3.1 김득신의 생애와 저술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은 조선 후기의 시인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공(子公), 호는 백곡(柏谷)이다. 아버지는 경상도관찰사를 지낸 치(緻)이며, 어머니는 사천 목씨(泗川睦氏)로 첨(詹)의 딸이고, 부인은 경주 김씨이다.

어릴 때 천연두를 앓아 노둔한 편이었으나,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도를 받아 노력하여 서서히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58세 되던 현종 3년(1662) 참봉(參奉)으로서 문과 급제하여 가선(嘉善)에 오르고 안풍군(安豐君)에 습봉(襲封)되었다. 공부할 때에 옛 선현과 문인들이 남

겨놓은 글들을 많이 읽는 데 주력하였으며, 그 중 『백이전(伯夷傳)』은 1억 번이나 읽어 자기의 서재를 ‘억만재(億萬齋)’라 이름 하였다. 『독수기』 말미에 보이는 ‘취묵당(醉墨堂)’은 현종 3년에 괴산리 능촌리 충민사 옆 괴강(槐江)가에 지은 독서당이며, 소식(蘇軾)의 시 『석창서취묵당(石蒼絨醉墨堂)』에서 취한 당호로 알려져 있다.

김득신은 문보다는 시에 능하였으며, 저술들이 병자호란 때 많이 타 없어진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 문집 『백곡집』에 많은 시와 글들이 전하고 있다. 정약용은 그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서 “부지런히 독서한 사람으로 김득신을 으뜸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하였으며, 효종은 김득신의 오언절구 시인 『용호(龍糊)』 『한강시(漢江詩)』에 대하여 “당시(唐詩)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극찬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시를 보는 안목도 높아 이행(李荇), 정사룡(鄭士龍), 정철(鄭澈) 등과 같은 앞 세대 유명시인들과 김석주(金錫胄), 홍만중(洪萬宗) 등과 같은 당대 문인들의 시를 뽑아 나름의 비평을 덧붙인 『종남총지(終南叢志)』도 남겼다. 그 외에 술과 부채를 의인화한 가전소설로서 『환백장군전(歡伯將軍傳)』과 『청풍선생전(淸風先生傳)』을 남기기도 했다.

## 3.2 『백곡집』의 편찬와 현전본

### 3.2.1 『백곡집』의 편찬

김득신은 늦게 출세하여 짧은 기간 동안 미관말직의 벼슬에 역임하였으나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대부분 전란과 재화로 유실되고 일부 시와 문이 『백곡

집』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으며, 이는 세 차례에 걸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초간본 『백곡집』은 김득신의 손자 가행(可行)이 가장(家藏)되어 온 수고(手稿)를 수집하고 외손 이렴(李濂)이 정리하고, 이서우(李瑞雨)와 박세당(朴世堂)의 산정과 편차 과정을 거쳐 1687년경에 간행되었다.

한편, 『구당집(久堂集)』을 간행할 때 함께 1책이 간행되었으나 보지 못하였다는 김상형(金相馨)의 발문의 기록과 『기문록(記文錄)』의 『구당집』 간행할 때 후손이 선조의 유훈을 어기기 어려워 공의 문집 1권을 겨우 냈다는 기록에 의거하여 1730년경에 박장원의 후손에 의해 다시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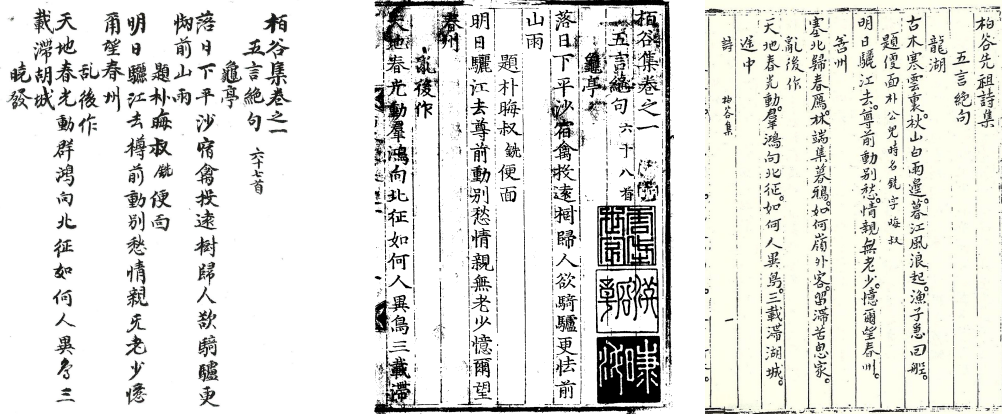
이후 부실하게 간행된 초간본 『백곡집』을 바탕으로 많은 양의 시와 문이 보충되고 행장 등 부록을 합부하여 7책으로 필사 편찬되었으나 병자호란 때 유실되고 남은 것들을 9대손 김상형이 영인본으로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고문삼십육수독수기』와 『독수기』 외에 6대손 김유헌(金由憲)의 『서독수기후(書讀數記後)』 등의 기록과 김상형의 발문이 실려 있다.

### 3.2.2 『백곡집』의 현전본

『독수기』가 실려 있는 『백곡집』의 현전본으로는 필사본과 목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필사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사진 1〉 참조)과 9대 후손 김상형 소장본(靑印淨寫本, 태학사와 한국문집총간 등의 영인본(〈사진 3〉 참조))이 있으며, 목판본으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소장본(〈사진 2〉 참조)이 있다. 필사본과 목판본의 구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현전본 『백곡집』의 구성

	국립중앙도서관	성대 존경각 소장본	김상형 소장본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태학사 영인본
			필사본	목판본
	4권 1책	5권 1책	7권, 부록	
권두	序(朴世堂)	序(朴世堂)	목록	序(李瑞雨) [序](朴世堂) 목록
권1	五言絶句 68수	五言絶句 68수	五言絶句 253수 六言詩 7수	
권2	七言絶句 136수	七言絶句 136수	七言絶句 469수	
권3	五言律詩 144수	五言律詩 144수	五言律詩 462수 五言排律 14수 五言古詩 15수	
권4	七言律詩 21수 隨錄諸卷 타인의 시 抄錄	七言律詩 63수	七言律詩 286수 七言古詩 30수 隨錄諸卷 타인의 시 抄錄	
권5		草堂序(朴世堂) 邀西岳兩上人碩賢道清序 謝贈益梅序 金剛錄 讀數記	序 46편 記 19편 古文三十六首讀數記	
권6			跋文 4편 墓碣銘 11편 論 3편 策 2편 說 9편 書 7편 行狀 3편 傳雜 3편 著著 6편	
권7			儷文 63수 應製文 29편 上樑文 13편 序 10편 書 6편 擬表 1편 雜錄 祭儀, 冠巾	
부록			李玄錫의 墓碣銘 孫 金可遠(金行中)의 行狀草 致祭文 祭文 7편 柏谷集序(李瑞雨) 讀數記 書讀數記後(金由憲) 搜錄 記聞錄 終南叢誌 序(朴世堂)	
			柏谷集跋(金相馨)	



〈사진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사진 2〉 성대 존경각 소장본 〈사진 3〉 김상형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성대 존경각 소장본은 필사본과 목판본의 다른 판종의 차이 외에 권책 구성에 역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권두의 박세당의 서와 권3까지의 구성이 동일하다. 권4의 구성에는 차이가 보이며, 특히 가장 큰 차이는 성대 존경각 소장본의 경우 권5에 「초당서(草堂序)」, 「요서악량상인석현도청서(邀西岳兩上人碩賢道淸序)」, 「사증분매서(謝贈盆梅序)」, 「금강록(金剛錄)」, 「독수기」의 5편의 글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상형 소장본은 기본적으로 권두에 목록에 이어 시집과 문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시를 수록하고 있다. 『종남총지(終南叢誌)』의 경우 저자와 관련있는 8항목으로 저자의 글인지 확실치 않다는 설이 있으며, 참고로 홍만중(洪萬宗)의 「시화총림(詩話叢林)」에서는 모두 4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5 말미에 「고문삼십육수독수기」가 실려 있고, 부록에 「독수기」가 실려 있다.

그러나 김상형 소장본 영인본은 몇 종이 있으나 그중 한국문집총간과 태학사의 영인본의

경우 일부 구성의 차이가 있다. 특히 태학사 영인본의 경우 권말에 9대손 김상형의 발이 실려 있으며, 편자 이가원이 권두부분에 이서우와 박세당의 서를 특별히 실었다. 한국문집총간의 경우 중복되는 서이므로 권두의 이서우의 서를 생략한 것으로 생각되나 권말의 김상형의 발이 누락된 이유는 자세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시 366수를 수록하고 있으며, 성대 존경각 소장본은 시 411수와 문 5편을 수록하고 있다. 반면에 김상형 소장본은 1,500수 이상의 시와 180편의 문 외에 이현석(李玄錫)의 「묘갈명(墓碣銘)」, 「백곡집서(柏谷集序)」, 「서독수기후(書讀數記後)」, 『종남총지』 등과 「독수기」 등이 실려 있어 현전본 중 수록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다.

#### 4. 「독수기」의 분석

김득신의 독수기책으로는 대표적으로 「독수기」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상형 소장본에는 「독

수기』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가 실려 있으며, 실제 두 기록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독수기』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의 기록의 차이를 분석하고 『독수기』의 내용을 조사 및 분석하기로 한다.

#### 4.1 『독수기』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의 비교

김득신은 반복적으로 책을 읽었는데, 이는 선조들의 대표적인 독서 방법의 하나였다. 그 예로 황덕길(黃德吉)의 『서김백곡득신독수기후(書金柏谷得臣讀數記後)』에 의하면 김일손(金日孫)은 한유의 글을 1천번, 윤결(尹潔)은 『맹자』를 1천번, 노수신(盧守愼)은 『논어』와 『두시』를 2천번, 최립(崔崱)은 『한서(漢書)』를 5천번, 그중 『항적전(項籍傳)』은 2배를, 차운로(車雲輅)는 『주역(周易)』을 5천번, 유몽인(柳夢寅)은 『장자(莊子)』와 유종인의 고문을 1천번, 정두경(鄭斗卿)은 『사기(史記)』를 수천번을, 권유(權愈)는 『강목(綱目)』 전체를 1천번 읽었다.

선조들은 책을 읽으면서 산문(算文) 또는

서수(書數)라고도 하는 서산(書算)을 이용하여 책 읽은 횟수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4> 참조). 이렇게 서산을 통하여 읽은 횟수를 기록한 것 중 김득신은 만 번 이상 읽은 글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독수기』이다. 김상형 소장본 『백곡집』에는 『독수기』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가 실려 있으며, 다음 <표 2>와 <표 3>과 같다.



<사진 4> 서산

<표 2> 『독수기』의 기록

제 목	독 수	편수
伯夷傳	1억1만3천번	1
老子傳, 分王, 霹靂琴, 周策, 凌虛臺記, 衣錦章, 補亡章	2만번	7
齊策, 鬼神章, 木假山記, 祭歐陽文, 中庸序	1만8천번	5
送薛存義序, 送元秀才序, 百里奚章	1만5천번	3
獲麟解, 師說, 送高閑上人序, 藍田縣承廳壁記, 送窮文, 燕喜亭記, 至鄧州北寄上襄陽于相公書, 應科目時與人書, 送區册序, 馬說, 朽者王承福傳, 送鄭尙書序, 送董邵南序, 後十九日復上書, 上兵部李侍郎書, 送廖道士序, 諱辨, 張君墓碣銘	1만3천번	18
龍說	2만번	1
祭鱈魚文	1만4천번	1
총 계		36

〈표 3〉 『고문삼십육수독수기』의 기록

제 목	독수	편수	『독수기』의 기록
獲麟解, 師說, 送高閑上人序, 藍田縣承廳壁記, 送窮文, 燕喜亭記, 至鄧州北寄上襄陽于相公書, 應科目時與人書, 送區冊序, 張君墓碣銘, 馬說, 朽者王承福傳	1만3천번	12	
鰐魚文	1만4천번	1	• 祭鰐魚文
鄭尙書序, 送董邵南序	1만3천번	2	• 送鄭尙書序
十九日復上書	1만3천번	1	• 後十九日復上書
上兵部李侍郎書, 送廖道士序	1만3천번	2	
龍說	2만번	1	
伯夷傳	1억1만1천번	1	• 1억1만3천번
老子傳	2만번	1	
分王	2만번	1	
霹靂琴	2만번	1	
齊策	1만6천번	1	• 1만8천번
凌虛臺記	2만5백번	1	• 2만번
鬼神章	1만8천번	1	
衣錦章	2만번	1	
補亡章	2만번	1	
木假山記	2만번	1	• 木假山記 • 1만8천
祭歐陽文	1만8천번		
薛存義送元秀才, 周策	1만5천번	2(3)	• 送薛存義와 送元秀才序로 분리 기술
中庸序	2만번	1	
百里奚章	1만5천번	1	
총 계		34	

『고문삼십육수독수기』에 실려 있는 “갑술년부터 경술년까지 읽었는데 그사이에 장자(莊子), 사기, 한서, 대학, 중용은 자주 읽었으되 만번이 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실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기록에 의하면 『독수기』 또는 『고문삼십육수독수기』는 기본적으로 만 번 이상씩 읽은 책에 대한 독수기록이다. 〈표 2〉와 〈표 3〉에서 조사된 것과 같이 『독수기』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의 독수기록 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순서의 차이. 『독수기』는 기본적

으로 『용설』과 『제악어문』이 예외이기하나 가장 많이 읽은 고문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류부터 한유의 고문에 이르기까지 분류하여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고문삼십육수독수기』는 한유의 고문들이 앞서고 이어서 역사류 등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특히 『고문삼십육수독수기』 뒤 부분에 만 번 이상 읽은 문장만 기록한다는 것과 기록이유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문삼십육수독수기』가 먼저 기록되고, 『독수기』는 이후에 정리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고문 수 기록의 차이. 수록되어 있는 고문 수의 경우 『독수기』에는 36편이 실려 있고, 『고문삼십육수독수기』에는 34편이 실려 있다. 즉, 『고문삼십육수독수기』에는 「송요도사서」와 「회변」이 누락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고문삼십육수독수기』의 제목에 ‘고문삼십육수’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여 나중에 『독수기』로 정리하면서 2편을 추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고문 제목의 차이.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차이가 조사되었다.

1) 제목의 수정. 『고문삼십육수독수기』의 「악어문」, 「정상서서」, 「십구일부상서」는 『독수기』에서 「제악어문」, 「송정상서서」, 「후십구일부상서」와 같이 수정되었다. 한편 「설존의송원수제」의 경우 「송설존의서」와 「송원수제서」로 분리 및 수정되었다.

2) 오자의 수정. 『고문삼십육수독수기』의 고문중 「목반산기」의 ‘反’은 『독수기』에서 「목가산기」의 ‘假’와 같이 오자가 수정되었다.

3) 제목의 분리. 이는 상술의 제목 수정의 한 예와 같이 『고문삼십육수독수기』의 고문 중 「설존의송원수제」의 경우 2편의 글로서 「송설존의서」와 「송원수제서」로 분리 기술하였다.

이상의 조사와 같이 제목과 오자의 수정 및 제목의 분리 수정에서 보이듯이 『고문삼십육수독수기』가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독수기』로 재정리하면서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독수 횡수 기록의 차이. 독수한 횡수에 대한 기록의 차이는 4편의 글에서 조사되었다. 「백이전」은 『고문삼십육수독수기』는 1억1만 1천번이나 『독수기』에서는 1억1만3천번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제책」은 『고문삼십육수독수기』

는 1만6천번이나 『독수기』에서는 1만8천번으로 기록하고 있다. 「능허대기」는 『고문삼십육수독수기』는 2만5백번이나 『독수기』에서는 2만번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목가산기」는 『고문삼십육수독수기』는 2만번이나 『독수기』에서는 1만8천번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이전」과 「제책」은 독수 횡수가 늘었으며, 「능허대기」와 「목가산기」는 독수 횡수가 줄었다. 독수 횡수의 기록의 차이에 의하면 『고문삼십육수독수기』가 먼저 기록되고 『독수기』로 재정리한 것으로 보기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종합적으로 『고문삼십육수독수기』와 『독수기』의 기록순서, 고문 수 기록의 차이, 일부 고문제목의 차이 그리고 독수 횡수 기록의 차이를 조사 분석한 결과, 김득수가 직접 기록한 『고문삼십육수독수기』를 이후에 『독수기』로 다시 정리하였거나 후대에 『백곡집』을 간행하면서 『독수기』로 정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독수기』로 재정리하면서 2편의 고문이 추가되는 등 전체적으로 수정 및 재편성되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2 『독수기』의 분석

『독수기』에 기록된 36편의 고문의 원저자와 저작 및 내용을 조사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김득신이 만 번 이상 읽은 고문들에 대하여 수록내용과 고문의 형식 및 고문 저자별로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수록 내용에 대한 분석한 결과 역사류, 유가류, 시문류의 고문들을 독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 『독수기』 수록 고문의 내용

고문	원저자와 저작	내용
伯夷傳	• 한 司馬遷 • 『史記』 권63 「伯夷列傳」 제1	• 역사류 • 열전
老子傳	• 한 司馬遷 • 『史記』 권63 「老子韓非列傳」 제3	• 역사류 • 열전
分王		
霹靂琴	• 당 柳宗元	• 산문 • 벽력금의 고사 • 『霹靂琴讚(並序)』
周策	• 전한 劉向 • 『戰國策』	• 주나라의 역사류
凌虛臺記	• 송 蘇軾	• 산문
衣錦章	• 『中庸』 제33장	• 유가류
補亡章	• 송 朱熹 • 『大學集註』 傳之五章	• 유가류 • 釋格物致知補亡章
齊策	• 『戰國策』 권8-13	• 제나라의 역사류
鬼神章	• 『中庸』 제16장	• 유가류
木假山記	• 송 蘇洵	• 산문
祭歐陽文	• 송 蘇軾	• 제문 • 『祭歐陽文忠公文』 • 참고: 북송 王安石의 「祭歐陽文忠公文」
中庸序	• 송 朱熹	• 유가류
送薛存義序	• 당 柳宗元	• 증서
送元秀才序	• 당 柳宗元	• 증서 • 원제목: 「送元秀才下第東歸序」 • 참고: 韓愈의 「送王含秀才序」
百里奚章	• 전국시대 孟子 • 『孟子』 「萬章章句上」	• 유가류
獲麟解	• 당 韓愈	• 산문 • 기린 해석 글
師說	• 당 韓愈	• 산문 • 스승의 도에 대하여 기술한 글
送高閑上人序	• 당 韓愈	• 증서 • 서법예술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글
藍田縣承廳壁記	• 당 韓愈	• 산문 • 현승 직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글
送窮文	• 당 韓愈	• 산문 • 한족 민간의 특색적인 세시풍속에 대한 글
燕喜亭記	• 당 韓愈	• 잡기 • 連州 司戶參軍 王弘中이 건축한 연희정을 기린 글
至鄧州北寄上襄陽于相公書	• 당 韓愈	• 서간문
應科目時與人書	• 당 韓愈	• 서간문 • 관리 임용 시험을 치를 때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고문	원저자와 저작	내용
送區册序	• 당 韓愈	• 증서 • 貞元 1년(805) 봄에 한유가 陽山에 거주할 때 청년친구인 區册에게 써준 글
馬說	• 당 韓愈	• 잡설 • 말에 인재를 비유하여 등용 임무의 중요성을 기록한 글
朽者王承福傳	• 당 韓愈	• 잡설 • 왕승복이라는 泥水匠의 전기
送鄭尙書序	• 당 韓愈	• 증서 • 정상서에 대한 송별사
送董邵南序	• 당 韓愈	• 증서 • 『送董邵南游河北序』 • 동소남유하를 위해 지은 송별사
後十九日復上書	• 당 韓愈	• 서간문 • 『后十九日復上宰相書』 • 『上宰相書』의 두 번째 편지
上兵部李侍郎書	• 당 韓愈	• 서간문 • 兵部侍郎 李巽에게 올린 편지
送廖道士序	• 당 韓愈	• 증서 • 永貞 년간 805년에 침주에 北上 명령을 기다리다 요도사와 헤어질 때 선사한 증서
諱辨	• 당 韓愈	• 서간문 • 李賀의 아버지 이름이 晉肅(jinsu)으로 중국음 進士(jinshi)와 비슷하기 때문에 進士試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의 주장을 논변한 글
張君墓碣銘	• 당 韓愈	• 묘갈명 • 『唐故河中府法曹張君墓碣銘』 • 『唐河中府法曹張君墓碣銘』 • 『河中府法曹張君墓碣銘』
龍說	• 당 韓愈	• 잡설 • 현신은 성군의 신용을, 성군은 현신의 보좌가 중요함을 기술한 글 • 『馬說』의 자매편
祭鱷魚文	• 당 韓愈	• 산문 • 당 憲宗 元和 14년(819)에 潮州刺史로 있을 때 악어에 탐관오리를 비유한 경고문

1) 역사류. 『백이전』, 『노자전』, 『주책』, 『제책』, 『백리해장』은 역사류에 실려 있는 고문들이다. 『백이전』과 『노자전』은 사마천의 『사기』 권63에 수록된 『열전』이며, 『주책』과 『제책』은 전한(前漢) 말기 유향(劉向)의 『전국책』에 수

록되어 있다.

2) 유가류. 『의금장』, 『귀신장』, 『보망장』은 유가류에 실린 고문이며, 『중용서』는 주희가 여러 주석서들을 집성한 『중용장구(中庸章句)』에 쓴 서로서 『중용장구서』라고도 한다. 『의금

장』은 『중용』 제33장이며, 『귀신장』은 『중용』 제16장이다. 『보망장』은 『대학집주』 전지오장(傳之五章)에 실린 주희의 『격물치지보망장』으로 『대학』 고본에는 없는 것을 주희가 보충해 넣은 글로 흔히 『보망장』이라고 한다. 『백리해장』은 『맹자(孟子)』, 『만장장구상(萬章章句上)』에 실린 춘추시대 백리해에 대한 내용이다.

3) 시문류. 김득신은 이상의 역사류와 유가류에 실린 고문 외에 다양한 글들을 독서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문학적 성격의 산문, 증서, 서간문, 잡설 등이다. 이상의 5편의 역사류 고문과 4편의 유가류 고문 및 조사가 어려운 『분왕』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문학 성격의 고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시문류의 형식별 분석 결과 산문, 제문, 증서, 잡기, 서간문, 잡설, 묘갈명의 고문들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문. 『벽력금』, 『능허대기』, 『목가산기』, 『획린해』, 『사설』, 『남전현승청벽기』, 『송공문』, 『제악어문』 등이 산문류이다. 그중 『사설』은 당 문인이자 사상가였던 한유(韓愈)가 스승의 도에 대하여 기술한 글로 후세에까지 명문(名文)으로 전하고 있으며, 『남전현승청벽기』는 당시의 현승(縣丞) 직에 대하여 서술한 산문이다. 『제악어문』은 당 헌종(憲宗) 원화(元和) 14년(819)에 조주자사(潮州刺史)로 있을 때에 악어가 해를 끼치므로 지은 산문으로 일종으로 당시의 탐관오리와 같은 이를 악어에 비유한 경고문이다.

2) 제문(祭文). 『제구양문』이 대표적으로 이는 북송때 삼소이자 당송팔대가인 동파거사(東坡居士) 소식(蘇軾)의 『소식문집(蘇軾文集)』에 실린 『제구양문충공문(祭歐陽文忠公文)』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북송 문학자 왕안석(王安石)이 1072년에 쓴 제문 『祭歐陽文忠公文』도 있다. 이는 산문으로도 분류되기도 한다.

3) 증서(贈序). 증서는 당대(唐代)에 비롯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적어주는 글로 친척이나 친구 또는 문인이 먼 길을 떠나가면 시가(詩歌)를 지어 이별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송고한상인서』, 『송설존의서』, 『송원수재서』, 『송구책서』, 『송정상서서』, 『송동소남서』, 『송료도사서』 등이 증서이다. 그중 『송고한상인서』 서법예술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글이며, 『송구책서』는 정원(貞元) 21년(805) 봄에 한유가 양산(陽山)에 거주할 때 청년친구인 구책(區冊)에 써준 것이다. 『송정상서서』는 한유가 정상서(鄭尙書)에게 쓴 송별사로 대표적 증서로 손꼽히는 글이다. 『송동소남서』는 일반적으로 『송동소남유하북서(送董邵南游河北序)』를 이른다. 한편, 『송설존의서』는 유·도·불(儒道佛)을 참작하고 신비주의를 배격한 자유·합리주의의 입장을 취했던 당 중기의 시인이자 당송팔대가였던 유종원(柳宗元)의 글이다. 『송원수재서』 역시 유종원의 글로써 원제목은 『송원수재하제동귀서(送元秀才下第東歸序)』이다. 참고로 한유의 『送王舍秀才序』일수도 있으나 『송설존의서』와 『송원수재서』는 유종원의 증서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득신이 『고문삼십육수독수기』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고문처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잡기(雜記). 『연희정기』는 한유가 당 정원(貞元)년간(800년 전후)에 연주(連州) 사호참군(司戶參軍) 왕홍중(王弘中)이 건축한 연희정을 그린 잡기(雜記)이다.

5) 서간문. 『지등주북기상양양우상공서』, 『응

과목시여인서」, 「후십구일부상서」, 「상병부이시랑서」, 「회변」 등이 서간문이다. 「응과목시여인서」는 한유의 서간문으로 관리 임용 시험을 치를 때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자신을 고시 위원장에게 천거해 달라는 뜻을 피력한 작품이며, 「후십구일부상서」는 원제가 「후십구일부상재상서(十九日夏上宰相書)」로서 한유의 상재상서(上宰相書)의 두 번째 것으로 지난번 편지를 올리고 19일 뒤에 다시 올린 편지이다. 「상병부이시랑서」는 한유가 유배생활을 한 뒤에 다시 중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부시랑(兵部侍郎) 이손(李巽)에게 올린 편지이다. 「회변」의 경우 회(諱)는 선조나 군주의 이름을 피하는 것으로 이하(李賀)의 아버지 이름이 진숙(晉肅, jìnsù)으로 이는 중국 발음으로 진사(進士, jìnsh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하는 진사시(進士試)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의 주장에 대한 한유의 논변이다.

6) 잡설. 「마설」, 「후자왕승복전」, 「용설」은 잡설류이다. 「마설(馬說)」은 한유의 잡설로 첫째 편은 용, 둘째 편은 의(醫), 셋째 편은 학(鶴), 네 번째가 마(馬)에 대한 내용 중 마지막으로 말을 알아보는 백락(伯樂)과 천리마 관계를 특유의 논조로 논하였다. 말에 인재를 비유하고 알아보고 등용하는 임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야 꿈을 펼칠 수 있다고 했으며, 자신의 불우함에 대한 비애를 나타내고 있다. 「용설」은 현신은 성군의 신용을, 성군은 현신의 보좌가 중요함을 기술하고 있으며, 「마설」의 자매편이라 할 수 있다.

7) 묘갈명. 「장군묘갈명」은 한유가 쓴 묘갈명으로 「당고하중부법조장군묘갈명(唐故河中府法曹張君墓碣銘)」, 「당하중부법조장군묘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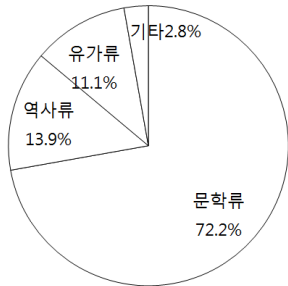
(唐河中府法曹張君墓碣銘)」, 「하중부법조장군묘갈명(河中府法曹張君墓碣銘)」으로도 알려져 있다.

셋째, 원 고문의 저자별 분석 결과 사마천, 유항, 유종원, 소식, 주희, 소순, 한유의 고문으로 조사되었으며, 김득신은 <표 5>와 같이 당나라 문인이자 사상가였던 한유의 고문을 가장 많이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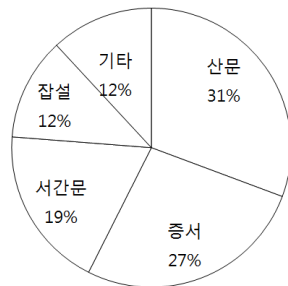
넷째, 「독수기」에 기록된 것은 당시 선비들이 즐겨 읽던 고문들로서 「고문삼십육독수기」의 제목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전국책』의 「주책」과 「제책」의 경우 역시 그중 한편의 고문을 독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고문들을 대상으로 글자수를 조사한 <표 5>를 살펴보면 최대 1,025자부터 최소 78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김득신은 평균 360자로 쓰여진 고문들을 주로 즐겨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짧은 글로 보일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1억1만 3천번(또는 1억 1만 1천번)을 읽었다는 「백이전」의 경우 실제로 김유현의 「서독수기후」의 ‘十千爲萬, 百千爲億’의 기록에 의하면 11만3천번을 읽은 것으로, 이는 정약용의 계산에 의하면 하루에 백번씩 읽어도 4년 정도 읽어야 하는 분량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김득신의 「독수기」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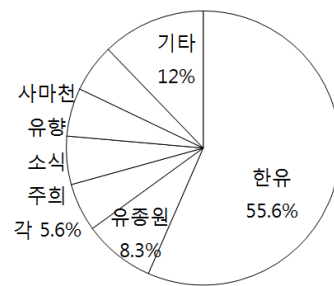
첫째, 수록 내용에 대한 분석한 결과 역사류, 유가류, 시문류의 고문들을 독서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김득신은 그중 시문류의 고문을 가장 많이 읽었다. 5종의 역사류 고문과 5종의 유가류 고문 및 조사가 어려운 「분왕」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한 26종, 약 72%는 문학 성격의 고문이라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주제별 비율



〈그림 2〉 시문류 비율



〈그림 3〉 저자별 비율

〈표 5〉 『독수기』 수록 고문의 글자수 분석

고문	글자수(자)	고문	글자수(자)	고문	글자수(자)
伯夷傳	893	中庸序	1,025	送區册序	206
老子傳	440	送薛存義序	241	馬說	150
分王	187	送元秀才序	233	朽者王承福傳	667
霹靂琴	187	百里奚章	166	送鄭尙書序	582
周策	404	獲麟解	178	送董邵南序	136
凌虛臺記	211	師說	451	後十九日復上書	497
衣錦章	156	送高閑上人序	329	上兵部李侍郎書	181
補亡章	78	藍田縣承廳壁記	325	送廖道士序	268
齊策	329	送窮文	658	諱辨	474
鬼神章	374	燕喜亭記	432	張君墓碣銘	378
木假山記	374	至鄧州北寄上襄陽于相公書	386	龍說	114
祭歐陽文	269	應科目時與人書	269	祭鱈魚文	469
총(평균)	11,887자(약 360자)				

〈표 6〉 『독수기』 수록 고문의 저자별 분석

저자	고문	편수
사마천	伯夷傳, 老子傳	2
유향	周策, 齊策	2
유종원	霹靂琴, 送薛存義序, 送元秀才序	3
소식	凌虛臺記, 祭歐陽文	2
주희	補亡章, 中庸序	2
소순	木假山記	1
맹자	百里奚章	1
한유	獲麟解, 師說, 送高閑上人序, 藍田縣承廳壁記, 送窮文, 燕喜亭記, 至鄧州北寄上襄陽于相公書, 應科目時與人書, 送區册序, 馬說, 朽者王承福傳, 送鄭尙書序, 送董邵南序, 後十九日復上書, 上兵部李侍郎書, 送廖道士序, 諱辨, 張君墓碣銘, 龍說, 祭鱈魚文	20

둘째, 시문류의 경우 산문, 제문, 증서, 잡기, 서간문, 잡설, 묘갈명의 고문들이었으며, 그중 산문과 증서를 많이 읽었다. 26종의 시문류 중 산문이 8종, 증서 7종, 서간문 5종, 잡설 3종이며 제문과 잡기 및 묘갈명은 각각 1종으로 산문과 증서가 전체 약 5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참조).

셋째, 원 고문의 저자별 분석 결과 사마천, 유항, 유중원, 소식, 주희, 소순, 한유의 고문으로 조사되었으며, 김득신은 당나라 문인이자 사상가였던 한유의 고문을 가장 많이 읽었으며, 이는 36편 중 20편으로 전체 약 55.6%이다 (<그림 3> 참조).

넷째, 『독수기』 기록에 의하면 김득신이 기록한 독수의 대상은 만 번 이상 읽은 고문 즉, 문장에 대한 기록이다. 대체로 평균 360자로 이루어진 고문에 대한 독수 기록이며, 『고문삼십육수독수기』 말미에 기록하고 있듯이 『장자』, 『사기』, 『한서』, 『대학』, 『중용』 등과 같은 문헌의 경우 '만독(萬讀)'하지 않았기에 독수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5. 결 언

오늘날 독서는 광범위한 정보제공, 지적 능력의 계발, 바람직한 정서와 가치관 함양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과 결속력의 강화 등의 기능을 지니며, 독서의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사회적 또는 교육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선조들에게 있어서 독서는 기본적인 언어와 지식 등의 학습 외에 입신양명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자 실제적인 목적이었다. 이 연구는 자신의 한계에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정독하는 노력형이자 대기만성형의 독서왕이자 시인으로 거듭 난 김득신의 『독수기(讀數記)』에 대한 현전본과 기록내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곡집』의 현전본은 2종의 필사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김상형 소장본(대학사와 한국문집총간 등의 영인본)과 1종의 목판본(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시 366수를 수록하고 있으며, 성대 존경각 소장본은 시 411수와 『독수기』 등 문 5편을 수록하고 있다. 반면에 김상형 소장본은 대학사와 한국문집총간의 서와 발의 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기본적으로 1,500수 이상의 시와 180편의 문 등이 실려 있으며 현전본 중 수록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다. 이들 판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김득신의 독수기록으로는 『독수기(讀數記)』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의 두 종류가 있다. 그중 『독수기』는 목판본의 성대 존경각 소장본에 수록되어 있으며, 김상형 소장본의 경우 『독수기』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셋째, 『독수기』와 『고문삼십육수독수기』의 1) 기록순서, 2) 고문 기록 수의 차이, 3) 고문제목의 차이(제목의 수정, 오자의 수정, 제목의 분리), 4) 독수 회수 기록의 차이를 조사 분석한 결과, 김득신이 『고문삼십육수독수기』를 이후에 『독수기』로 다시 정리하였거나 후대에 『백곡집』을 간행하면서 『송요도사서(送廖道士序)』와 『휘변(諱辨)』의 2편의 고문을 추가하는 등 『독수기』로 수정 및 재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독수기』에 기록된 36종의 고문의 내용을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록 내용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역사류, 유가류, 시문류의 고문들을 독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전체 36편 중 26편(약 72%)이 문학 성격의 고문으로 조사되었다.

2) 시문류에 대한 형식별 분석 결과 산문, 제문, 증서, 잡기, 서간문, 잡설, 묘갈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6편의 시문류 중 15편(약 57.7%)가 산문과 증서로 조사되었다.

3) 원 고문의 저자별 분석 결과 사마천, 유방, 유종원, 한유, 소식, 주희, 맹자 등이 조사되었으며, 김득신은 당나라 문인이자 사상가였던

한유의 고문을 36편 중 20편(약 55.6%)으로 가장 많이 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김득신은 전체 책을 다 읽은 것이 아니라 대체로 길지 않은 고문으로 한번 이상 읽을 글들에 대한 독수기록을 남겼다.

『독수기』는 조선시대 책벌레 김득신의 독수기록이다. 이상과 같이 진행된 『독수기』에 대한 조사 및 내용 분석을 통하여 막연하게 독서왕의 독서기록 또는 독서방법으로 회자되고 인용되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활용되길 바라며, 관련 연구자의 기초자료로 참고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광수. 2010. 『김득신의 시론과 시의 관련 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 [2] 金得臣. 『柏谷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3] 金得臣. 『柏谷集』.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
- [4] 金得臣. 1985. 『柏谷文集』. 서울: 太學社.
- [5] 金得臣. 1993. 『柏谷集』. 韓國文集叢刊 10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6] 김성기. 2006. 김득신(金得臣)의 시(詩) 인식(認識)과 시세계(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10: 319-355.
- [7] 김창룡. 1992. 충격과 조화: 백곡 김득신의 인간과 문학(하).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2: 511-537.
- [8] 김창룡. 2004. 김득신의 생애와 문화: 백곡 김득신의 산문 문학에 대하여. 『중원문화연구총서』, 8: 31-46.
- [9] 박물관 포럼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index.do>>
- [10] 박수천. 2007. 종남총지(終南叢志)의 비평양상(批評樣相). 『한국한시연구』, 15: 395-423.
- [11] 배다니엘. 1998. 金得臣의 『終南叢志』에 나타난 嚴羽 詩論의 수용. 『中國學論叢』, 7: 291-321.
- [12] 성범중. 2004. 김득신의 생애와 문화: 김득신의 한시에 나타난 귀거래의식과 취묵당. 『중원문화연구총서』, 8: 17-30.
- [13] 신범식. 2004. 김득신의 『종남총지(終南叢志)』에 나타난 시론: 비평관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총서』, 8: 17-30.

- 구』, 8: 47-60.
- [14] 안병렬. 1985. 假傳體小說 作品研究. 『安東大學論文集』, 7: 71-87.
- [15] 李英徽. 1991. 柏谷 金得臣의 儷文 研究. 『語文研究』, 21: 203-223.
- [16] 李在福. 1998. 柏谷 金得臣論. 『단국어문논집』, 2: 91-128.
- [17] 임동철. 2004. 김득신의 생애와 문화: 김득신의 생애와 문학적 배경. 『중원문화연구』, 8: 1-15.
- [18] 임이빈, 방정균. 2008. 醫學讀書記 卷上에 對한 翻譯研究. 『대한한의학전문학회지』, 21(1): 183-203.
- [19] 장진숙. 2014. 『柏谷 金得臣의 妙悟의 書藝世界 研究』,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Gwang-soo. 2010. *A Study on Deuk-shin Kim's Essays and Poems*. Dissertation for Doctor's Degree,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 [2] Kim, Deuk-shin. *Baeggokjib*. Possessed by National Central Libirary of Korea.
- [3] Kim, Deuk-shin. *Baeggokjib*. Possessed by Jonkyunggank, Seongkyunkwan University.
- [4] Kim, Deuk-shin. 1985. *Baekyoo Anthology*. Seoul: Taehak Publish Co.
- [5] Kim, Deuk-shin. 1993. *Baekyoojib: Anthology*. Published by Korea Anthology 104. Seoul: National Culture Promotion Institute.
- [6] Kim, Seong-gi. 2006. "Deuk-shin Kim's recognition of poems and his world of poems." *Research on Authors of Korean Poem*, 10: 319-355.
- [7] Kim, Chang-ryong. 1992. "Shock and Harmony: Baegkok Deuk-shin Kim's Persona and Literature II." *Oriental Literature Comparative Study Series*, 2: 511-537.
- [8] Kim, Chang-ryong. 2004. "Deuk-shin Kim's Life and Culture: on Baeggok Deuk-shin Kim's Prose Literature." *Jungwon Culture Study Series*, 8: 31-46.
- [9] Museum Forum e-museum. <<http://www.emuseum.go.kr/index.do>>
- [10] Park, Soo-cheon. 2007. "Review Aspect of *Jongnamchongji*?" *Koean Poetry Study*, 15: 395-423.
- [11] Bae, Daniel. 1998. "Acceptance of Poetics Appearing in Deuk-shin Kim's *Jongnam*?" *Chinese Study Journals*, 7: 291-321.
- [12] Seong, Bum-joong. 2004. "Deuk-shin Kim's Life and Culture: Homecoming Sense and Chwimukttang Appearing in Deuk-shin Kim's Korean Poems." *Jungwon Culture Study Series*, 8: 17-30.
- [13] Shin, Bum-shik. 2004. "View Appearing on Deuk-shin Kim's *Jongnamchongji*: Based on

- Criticism View.” *Jungwon Culture Study*, 8: 47-60.
- [14] Ahn, Byoung-ryul. 1985. “A Study on False Biography Style Novel Work.” *Andong University Journals*, 7: 71-87.
- [15] Lee, Young-chul. 1991. “A Study on Baegkok Deuk-shin Kim’s?” *Language Study*, 21: 203-223.
- [16] Lee, Jae-bok. 1998. “A Study on Baegkog Deuk-shin Kim.” *Dankuk Language Journals*, 2: 91-128.
- [17] Lim, Dong-chul. 2004. “Deuk-shin Kim’s Life and Culture: Deuk-shin Kim’s Life and Cultural Background.” *Jungwon Culture Study Series*, 8: 1-15.
- [18] Lim, Ih-bin and Bang, Jeong-kyung. 2008. “Interpretation and Study on Medical Book Reading.” *Korea Oriental Medicine Professional Institute Journal*, 21(1): 183-203.
- [19] Jang, Jin-sook. 2014. *Baekyoo Deuk-shin Kim’s Study on Caligraphical World*.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Oriental Study Graduate School of Won Kwang University.

